

# “전라도의 수도 원년 만들겠다”

### 전주시, 신년 첫 간부회의 가져... 민선8기 공약사업 실행 논의·당면 현안업무 보고 우범기 시장, 새해 첫 현장 방문지 종합경기장 부지 내 야구장 찾아 신속 업무 추진 주문

우범기 전주시장은 ‘강한경제 전주’를 토대로 신년 간부회의를 통해 전라도의 수도로 재도약하기 위한 힘찬 새해 시작을 알렸다.

우 시장은 철거가 예정된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내 야구장을 새해 첫 현장 방문지로 찾아 민선8기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강하게 주문했다.

전라감영 선화당에서 전주시는 2일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실현 위한 신년 첫 간부회의를 가졌다.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전라도와 제주도의 정치·경제·문화를 아우르던 통치기관으로서 “전주의 옛 영광을 되찾겠다”는 우 시장의 의지와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첫 간부회의에는 16개 실·국·소장과 6개 출연기관장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공약사업 실행에 대한 논의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민선8기 출범 이후 맞이한 첫 신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바 협력을 당부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4개 분야 8대 핵심전략 89개 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실행 계획 및 추진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날 첫 간부회의에는 16개 실·국·소장과 6개 출연기관장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공약사업 실행에 대한 논의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민선8기 출범 이후 맞이한 첫 신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바 협력을 당부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4개 분야 8대 핵심전략 89개 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실행 계획 및 추진 로드맵을 마련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철거가 예정된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내 야구장을 새해 첫 현장 방문지로 찾아 민선8기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강하게 주문했다.

효성탄소섬유 전주공장, (주)유니온시티를 방문해 강한경제를 바탕으로 전주발전의 이행을 위한 현장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4개 분야 8대 핵심전략 89개 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실행 계획 및 추진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날 첫 간부회의에는 16개 실·국·소장과 6개 출연기관장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공약사업 실행에 대한 논의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민선8기 출범 이후 맞이한 첫 신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바 협력을 당부했다.

단체 중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초로 시정연구원 설립 허가를 받는 등 민선 8기 전주 변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2022년이 민선8기 비전을 제시하고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2023년 계묘년 새해는 민선8기 전주시정이 상징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들과 약속했던 공약을 중심으로 전주의 대변력을 이끌 주요 사업을 계획대로 단단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현장 간부회의에 앞서 전주 군영묘지를 찾아 현화하는 것으로 계묘년 새해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첫 간부회의에는 16개 실·국·소장과 6개 출연기관장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공약사업 실행에 대한 논의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첫 간부회의에는 16개 실·국·소장과 6개 출연기관장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공약사업 실행에 대한 논의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민선8기 출범 이후 맞이한 첫 신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바 협력을 당부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4개 분야 8대 핵심전략 89개 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실행 계획 및 추진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민선8기 출범 이후 맞이한 첫 신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바 협력을 당부했다.

# “‘금연 성공’ 금연클리닉과 함께 해요”

### 전주시보건소, 새해 금연 결심 시민 위해 상시 운영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2023년 새해 금연을 결심하는 시민들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할 계획을 발표했다.

담배는 각종 암 및 질병의 원인이 되며, 금연율도 낮은 유해성을 지녔으며, 금연을 하게 되면 만 하루만 지나도 심장마비의 위험이 떨어질 정도로 신체 효과가 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독성이 강한 담배의 특성상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금연하기가 매우 어려워 금연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통한 꾸준한 상담과 약물요법이 도움이 된다.

이에 보건소는 연중 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을 희망하는 모든 흡연자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니코틴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무료 제공, 니코틴 의존도 평가 시행, 심리적 지지 등의 다양한 금연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금연 성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대상자들에게 금연클리닉 등록 후 3개월, 6개월 금연 성공 시 기념품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 보건소는 금연 성공 6개월 이후에도 전화와 문자 등을 활용해 대상자들이 평생 금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지할 예정이다.

전주시 금연클리닉은 전주시보건소(063-281-6357)와 덕진보건소(063-281-8572)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 희망자는 가까운 보건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들의 문의 전화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금연클리닉을 적극 홍보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지원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이명 기자

# 전주완산소방서,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전주완산소방서는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설 명절 기간 중 도내 99건의 화재 및 1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화재요인은 부주의가 70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 명절 기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화재안전조사 및 불시단속을 강화하고, 쪽방촌 등 주거취약시설 대상 지도방문과 전통시장·다중이용시설에 관계인 주

도 자율안전점검을 위한 ‘안전하기 좋은 날(D-day)’을 운영하고 있다.

또 생활 속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목보일러 등 난방용품 안전사용법 교육·홍보, 화재취약가구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 지원, 고향집 주택용소방시설·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캠페인’ 등을 추진해 안전사고와 재산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김장수 서장은 “설 연휴 기간에 안전점검이 소홀해지면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에 화재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완산구,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추진

전주시 완산구 내 주거환경과 기반 시설이 열악한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을 위해 ‘2023년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은 완산구 5개동(동서학동, 평화2동, 삼천3동, 효자4·5동)에 위치한 67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구는 11월부터 관내 5개 농촌마을(동서학동, 평화2동, 삼천3동, 효자4·5동)을 대상으로 동 주민센터를 통한 수요조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4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마을로는 동서학동 외인당마을, 삼천3동 원종인마을, 석구동 독정

리골, 효자4동 원삼마을이며, 주민수해도, 사업의 효과, 대상지의 노후 및 재해위험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총사업비 1억6000만원을 투입해 ‘수로 정비, 농로 포장’ 등의 기반시설을 정비할 예정이며, 2월까지 실시계획용역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여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예산 확보는 물론 쾌적한 마을환경을 구축해 열악한 농촌마을의 불편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이명 기자

# 전주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돕는다

### 올해 172억원 규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전주시가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로 했다.

시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올해 전년보다 약 10억 원 증가한 172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기업이 시와 협약한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한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둔 1월의 경우 명절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1일까지 접수를 받고, 설 연휴 이전 선정 결과를 통보해 기업들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건설업·부동산업·보건의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융자 한도액은 중소기업 3억 원까지, 소상공인은 2000만원까지다.

융자기간은 2년(연장 신청시 1년 연장 가능)이며, 시는 일반기업에는 3%, 여성·장애인기업과 벤처기업, 바이전주 우수업체, 우수 향토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는 3.5%씩의 대출 이자를 보전해줄 계획이다.

최종 지원 여부는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희망 업체는 전주시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 3층에 위치한 기업지원사무소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공고문에 명시된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융자지원이 결정된 업체는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시중 9개 금융기관(전북·KB국민· 신한·IBK기업·KEB하나·KDB산업·우리·NH농협·수협)에서 2개월 이내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 형식인 만큼 신청 이전에 대출 신청 은행과의 자금 대출 상담이 필요하다.

전주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이명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